

# 1920~1930년대 광고물을 통해 본 혼구품(婚具品)의 구성과 유통 양상

오 선 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패션전공 강사

##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Traditional Wedding Goods Through Advertisements During the 1920s and 1930s

Sunhee Oh

Lecturer, Fashion Major,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date: 2025. 5. 16, revised date: 2025. 6. 10, accepted date: 2025. 6. 11)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onggupum* (婚具品)—wedding goods used in traditional Korean ceremonies—during the 1920s and 1930s, by analyzing newspape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al materials from wedding supply stores. Major vendors such as *Gwangjin*-shop (廣進商會), *Manmul*-shop (萬物床塵), *Gyerim*-shop (鷄林商會), and *Yeongheungdeok*-shop (永興德商店) played key role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se goods. Notably, *Gyerim*-shop and *Yeongheungdeok*-shop released promotional booklets with detailed information for consumers. Wedding item sets usually included five to seven pieces, including ceremonial garments and accessories. Six-piece sets were the most commonly distributed: for men, items included an official robe (*Gwanbok*), official belt (*Gakdae*), official hat (*Samo*), insignia patch (*Hyungbae*), black boots (*Mokhwa*), and official attire box (*Gwanbokpan*); for women, items included a ceremonial robe (*Wonsan*), ceremonial coronet (*Jokdur*), dragon-shaped hairpin (*Yongjam*), large and front hair ribbons (*Daedanggi*, and *Myeondanggi*), and either a hair ornament (*Cheopji*) or a wedding box (*Sangja*). Items were classified into quality grades based on quantity, materials, and techniques. Both traditional and imported textiles were used, with high-quality goods decorated with gold leaf, pearls, orpiment, and coral. These distinctions reflect a stratified consumption pattern, illustrating the commod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edding items in early modern Korea. By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grading standard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Honggupum*, this study clarifies the visual and material culture of modern weddings. The findings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textile history, craft studies, and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dress, while also contributing to discussions in commercial history and consumer culture.

Key words: Gyerimsanghoe(계림상회), modern advertisements(근대 광고), wedding costumes(혼례복), wedding items(혼구품), Yeongheungdeoksangjeom(영흥덕상점)

## I. 서론

혼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 중에서도 가장 경사스러운 의례이자 두 집안의 결합을 의미하는 사회적 의례로서 준비 단계부터 본 의식까지 많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신랑, 신부는 일생 가장 아름답고 격식 있는 꾸밈을 갖추었으며, 섭성(攝盛)의 풍속을 통해 민간에서도 상류층의 복식을 착용할 수 있었다. 쓰개와 장신구, 예복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아이템이 소용되었는데, 품목에 따라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세물전(賁物塵)을 통해 대여하거나 전문 판매점을 통해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 시기 혼례 사진에서 유사한 형식의 혼례복을 갖춘 신랑, 신부의 모습이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순종 연간의 혼례복에 관한 Shin and Kim (2009)의 연구 및 근대 시기 혼례복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긴 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핀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 시기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여러 건의 혼구품(婚具品)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혼구품은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는 신랑·신부의 성장(盛裝)을 위한 혼례복을 의미하며, 넓게는 나무 기러기, 호피 담요, 가마 등의 물품을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시기 광고에서는 혼구품의 대표 항목으로 신랑·신부의 혼례 복식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판매점에 관한 정보와 함께 판매 품목과 가격, 소재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신문 광고 외에 각 판매점에서 홍보와 판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광고지와 카탈로그도 전해지며, 이를 통해 혼구품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고찰할 수 있다. 계림상회의 운영과 영업 방식을 고찰한 Kim(2025)의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고찰하였으나, 혼구품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시기의 신문 광고 및 판매점별 광고지와 카탈로그의 면밀한 고찰을 통해 신랑·신부 혼구품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혼구품 판매점의 광고 게재 및 홍보물 배포 양상, 소비자의 구매 경로 및 판매 범위, 판매 방식과 같은 유통 관련 특성을 살펴 보고, 혼구품이 어떠한 구성과 등급 체계로 제작 및 판매되었는지를 상세히 고찰해본다. 이를 통해 기성 혼구품의 구체적인 특성과 함께 당시의 복식 재료 관련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근대 시기 혼례 문화에 관한 새로운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근대 복식 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대상 시기는 혼구품 판매점의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전통 혼례가 잔존하며 전통 혼구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었던 1920~1930년대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료 중 신문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판매점의 상호와 주소 등 단순 정보만 간략하게 제시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혼구품에 관한 상세 내역이 게재된 경우만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혼구품 판매점에서 발행한 홍보 자료는 영흥덕상점(永興德商店)의 <영흥덕상보(永興德商報)>와 <영흥덕상보부록(永興德商報付祿)>, 계림상회(鷄林商會)의 『계림상회영업목록(鷄林商會營業目錄)』이 있었다. 이 중, <영흥덕상보>와 『계림상회영업목록』은 소장처를 통해 원문 이미지를 제공받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밖에 관련 유물 자료들은 이뮤지엄(e-museum)을 통해 수집하였다.

## II. 혼구품 판매점과 광고 양상

1920~1930년대 혼구품 광고는 주로 신문의 광고란을 통해 게재되었으며, 1922년부터 1936년까지 총 35건이 조사되었다. 광고를 진행한 판매점은 광진상회(廣進商會), 만물상전(萬物床塵), 계림상회(鷄林商會), 영흥덕상점(永興德商店), 남창상

<Table 1> The Number of Wedding Goods Advertisements in Newspapers during the 1920s and 1930s

Shop Name	Year(Number of Cases)
Gwangjin-shop[광진상회]	1921(8)
Manmul-shop[만물상전]	1922(2), 1923(1)
Gyerim-shop[계림상회]	1922(1), 1924(3), 1925(1), 1926(2), 1927(4)
Yeongheungdeok-shop[영흥덕상점]	1926(1), 1927(3)
Deokcheon-shop[덕천상점]	1927(2), 1930(2), 1934(1)
Namchang-shop[남창상점]	1931(2), 1932(1), 1936(1)

점(南昌商店), 덕천상점(德泉商店)의 여섯 곳이었다. 광진상회는 8건, 만물상전은 3건, 계림상회는 11건, 영흥덕상점은 4건, 덕천상점은 5건, 남창상점은 4건을 게재하였으며, 각 상점의 연도별 상세한 광고 양상은 <Table 1>과 같다. 덕천상점을 제외한 다섯 곳의 광고는 모두 『조선일보(朝鮮日報)』나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실렸으며, 덕천상점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좀 더 활발히 광고를 게재하였다.

1921년의 광진상회 광고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Fig. 1>과 같이 ‘各種冠服’, ‘各種元衫諸具’, ‘各種婚函添木器’의 문구를 통해 관복, 원삼, 혼함(婚函)과 같은 판매품 목록을 간략히 홍보하였다. 1920년대 초반에 주로 광고를 게재한 만물상전은

<Fig. 2>와 같이 눈에 띄는 광고 문구와 상세한 목록을 통해 혼구품 판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920년대 후반 이후의 혼구품 광고 양상을 보여주는 덕천상점과 남창상점의 광고는 혼례복을 입은 신랑·신부 삽화를 통해 혼구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판매 내역은 <Fig. 3>에서처럼 ‘婚喪用品’, ‘冠服’, ‘元衫’, ‘婚具各種’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ig. 4>와 <Fig. 5>에서는 ‘朝鮮舊式婚具用品具備’, ‘冠服元衫婚具用品製造販賣’의 좀 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1934년 덕천상점 광고의 구식혼구용품(舊式婚具用品)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식 혼구품과 전통 혼구



<Fig. 1> Gwangjin-shop Advertisement (Special sales advertisement, 1921)



<Fig. 2> Manmul-shop Advertisement (Wedding items, 1922)



<Fig. 3> Deokcheon-shop Advertisement (Deokcheon-shop, 1930)



<Fig. 4> Deokcheon-shop Advertisement (Traditional wedding supplies, 1934)



<Fig. 5> Namchang-shop Advertisement (Manufacture and sale of various fur goods, 1931)

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삽화의 신랑·신부는 전통 혼례복 차림을 하고 있으며, 신랑은 ‘썸크래프트’와 ‘후로코트’를 입고 신부는 면사포를 쓰는 신식 혼례식의 (“New Wedding Ceremony”, 1931) 것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 가장 활발히 혼구품 광고를 진행했던 판매점은 계림상회이다. <Fig. 2>와 유사한 방식의 문구 중심 광고도 있었지만, <Fig. 6>처럼 혼례복의 실물 사진을 활용하거나 <Fig. 7>과 같이 삽화를 통해 시인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방식의 광고를 여러 건 게재하였다. 특히 혼구품 전문점으로서의 오랜 경력, 외국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하는 방식을 통한 합리적 가격 책정, 혼구품 개량을 통한 품질 경쟁력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해당 상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매 10원당 1원을 할인해 주는 <Fig. 8>의 할인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여 주는 사은 행사 형식의 마케팅도 전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Fig. 7>의 삽화가 덕천상점, 남

창상점, 영흥덕상점의 광고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계림상회영업목록』에 수록된 <Fig. 9>의 삽화가 원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우석 김기창 필(愚石金基昌筆)’의 문구가 기재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석 김기창(1892~1976)은 일제 강점기부터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서 활동하였으며,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비 그림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김나비’로 불렸던 화가이다(Baek, 2021). 짐작건대, 계림상회가 1926년 11월 20일 합명회사로 전환하며 백화점식 잡화점으로 기반을 다지고자(Kim, 2025) 홍보 책자인 『계림상회영업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교하고 차별화된 삽화 수록을 위해 김기창 화백에게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림상회 측에서 해당 삽화를 다른 상점에 직접 제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27년 이후의 광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Fig. 9>가 당시 혼구품 광고 삽화의 기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흥덕상점 역시 1920년대에 주로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삽화를 활용한 광고 한 건을 제외하면



### III. 혼구품의 품목과 구성

#### 1. 남성 혼구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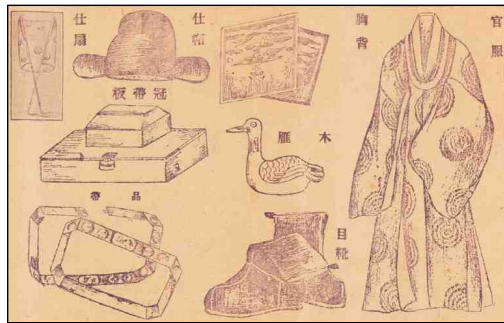
1920~1930년대의 혼구품은 보통 예복과 장신구가 포함된 세트 형식으로 판매되었다. 신랑용 혼구품으로는 관복(冠服, 官服), 각대(角帶), 사모(紗帽, 仕帽), 흉배(胸背), 목화(木靴, 目靴), 관복판(官服板), 사선(仕扇)이 구성품에 포함되었다. 각대는 품대(品帶)로도 표기되었고, <Fig. 11>과 같이 관대를 담는 용도의 관복판은 관대판(冠帶板)으로도 불렸다. 이들은 각 상점의 상품 구성에 따라 5~7종으로 마련되었으며, <Fig. 12>의 <영흥덕상보부록>을 통해 7개 품목의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혼구품의 구성이 명시된 신문

광고와 『계림상회영업목록』, <영흥덕상보부록>을 통해 상점별 상품군과 세트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상점은 만물상전, 계림상회, 영흥덕상점의 세 곳으로 6종 구성이 보편적이었으며, 계림상회는 5종, 영흥덕상점은 7종 구성도 판매하였다. 관복·각대·사모·흉배·목화의 5종을 기본으로, 6종 구성에는 관복판이 추가되었고, 7종 구성에는 신랑의 얼굴을 가리는 사선까지 포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혼구품 세트는 상품군의 종류와 개수, 품질에 따라 3~5단계로 등급이 나뉘었으며, 상품의 등급은 ‘특(特), 별(別), 상(上), 중(中), 차(次), 갑(甲), 을(乙)’을 활용하여 표기하였다. 상점마다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고, 같은 등급 명칭이라 하더라도 각 상점에서의 위치가 다르며, 동일 가격



<Fig. 11> Official Attire Box  
(National Museum of Korea, n.d.)



<Fig. 12> Illustration from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n.d.)

<Table 2> Product Categories and Set Compositions by Shop(Male Items)

Shop name \ Item	Gwanbok [Official's robe]	Gakdae [Official's belt]	Samo [Official's hat]	Hyungbae [Insignia]	Mokhwa [Black Boots]	Gwanbokpan [Official attire box]	Saseon [Groom's ceremonial fan]
Gyerim-shop	○	○	○	○	○		
	○	○	○	○	○	○	
Manmul-shop	○	○	○	○	○	○	
Yeongheungdeok-shop	○	○	○	○	○	○	
	○	○	○	○	○	○	○

상품군의 등급 체계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절대적 기준이 적용된 공통의 등급 체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등급 명칭의 명시는 생략하고, 각 상점의 시기별 혼구품 구성과 가격 체계를 등위의 순차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계림상회에서 출시했던 5종 구성은 29~42圓으로 판매되었으며, 1920년대에 세 상점에서 공통으로 판매된 6종 구성은 18~45圓, 영흥덕상점의 7종 구성은 22~38圓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쌀 가격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비교했을 때 1920년대의 1圓은 현재 금액으로 약 8,400~11,500원으로 환산된다. 만물상전은 1922년 최고가를 45圓으로 하여 세 상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였으나, 1923년에는 32圓으로 대폭 낮추며 세 상점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계림상회는 1922~1927년까지 비교적 큰 변동이 없는 가격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품질이 제일 낮은 등급을 제외하면 대체로 가격대가 약간 높은 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1924년 새롭게 도입한 6종 구성의 가격이 1922년의 5종 구성과 거의 같거나 낮다는 점이다. 『계림상회영업목록』을 참고하면 관복·각대·사모·홍배·목화 5종의 개별 가격을 합한 것이 6종 세트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 6종으로 구성은

늘렸지만 실제로 관복판은 서비스 개념의 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흥덕상점은 가격 체계를 가장 유동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상위 등급의 가격이 계림상회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 2. 여성 혼구품

신부용 혼구품 역시 신량과 동일하게 5종에서 7종의 구성으로 판매되었으며, 원삼(元衫)·족두리(簇頭里)·용잠(龍簪)·대당기(大唐只)·면당기(面唐只)·첩지[接只]·상자(箱子)·동대(同帶)가 구성품에 포함되었다. 대당기는 머리 뒤에 늘이는 큰당기를 말하며, 뒤당기라고도 하였다. 면당기는 용잠 양쪽에서 얼굴 옆쪽으로 감아 내리는 앞당기로, '前唐只[앞줄당기]·소당기·전당기'로도 표기되었다. 동대는 원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자는 나무 혹은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만들고 색지(色紙)를 붙여 장식한 색상자(色箱子)이다. <Fig. 13>과 같이 태극 무늬를 넣은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크기를 하나의 세트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Table 4>를 보면, 여성 혼구품은 원삼·족두리·용잠·대당기·면당기의 5종 구성에서 첩지 또는 상자가 더해져 6종 구성이 되었으며, 7종 구성에는 동대까지 포함되었다. 남성 혼구품과 같이 6종 구성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5종 구성은 계

<Table 3> Price List by Shop(Male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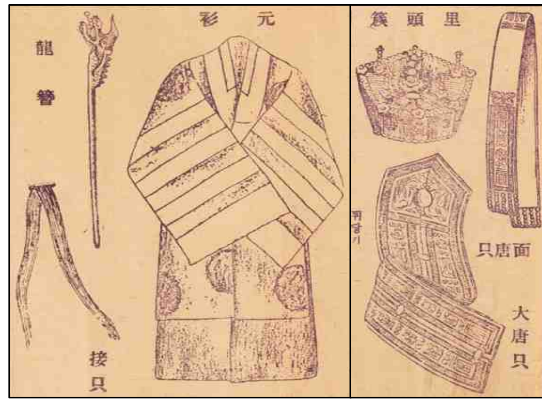
Shop name	Period	Price(圓)					Set Size
Manmul-shop	1922.10~1922.11	45	30	25	20		6-piece
	1923.12	32	28	22	18		6-piece
Gyerim-shop	1922.10	42	34	29			5-piece
	1924.10~1925.10	42	34	28	19		6-piece
	1926.11~1927.11	42	35	27	18		6-piece
Yeongheungdeok-shop	1926.11~1927.3	34.5	29.5	24.5	19.5		6-piece
	1927.12	37	32	28	24	20	6-piece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38	33	26	24	22	7-piece

<Table 4> Product Categories and Set Compositions by Shop(Female Items)

Item Shop name	Wonsam [Ceremonial robe]	Jokduri [Ceremonial coronet]	Yongjam [Dragon- shaped hairpin]	Daedanggi [Hair ribbon]	Myeondanggi [Hair ribbon]	Cheopji [Hair ornament]	Sangja [Box]	Dongdae [Belt]
Gyerim-shop	○	○	○	○	○			
	○	○	○	○	○		○	
Manmul-shop	○	○	○	○	○	○		
	○	○	○	○	○		○	
Yeongheungdeok-shop	○	○	○	○	○	○		
	○	○	○	○	○	○		○



<Fig. 13> Paper-decorated Boxes  
(Kyonggi University Sosung Museum, n.d.)



<Fig. 14> Illustration from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NFMK, n.d.)

림상회, 7종 구성은 영흥덕상점에서 판매되었다. <Fig. 14>의 <영흥덕상보부록>에는 동대를 제외한 6종 품목의 삽화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계림상회의 것과 같은 삽화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계림상회영업목록』에도 <Fig. 12>·<Fig. 14>의 삽화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앞서 <Fig. 9>의 신랑·신부 삽화와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림상회는 6종 구성을 판매하여 동대의 삽화가 없었기에 7종 구성을 홍보하는 <영흥덕상보부록>에서도 해당 품목이 누락된 것으로 추측된다.

각 상점의 시기별 여성 혼구품 구성과 가격 체계를 등위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5종 구성은 26~35圓, 6종 구성은 17~45圓, 7종 구성은 21~37圓의 가격대로 판매되었으며, 1922년 만물상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남성용의 가격대가 여성용보다 1~7圓 정도 높았다. 세 상점에서 공통으로 판매된 6종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만물상전의 가격대가 가장 높고, 영흥덕상점의 가격대가 가장 낮았던 경향이 보인다. 계림상회의 경우 앞서 남성용 혼구품에서와 같이 6종 구성의 상자는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되었다(Product

<Table 5> Price List by Shop(Female Items)

Shop name	Period	Price(圓)					Set Size
Manmul-shop	1922.10~1922.11	45	30	25	20		6-piece
	1923.12	35	32	28	22		6-piece
Gyerim-shop	1922.10	35	29	26			5-piece
	1924.10~1925.10	35	29	26	17		6-piece
	1926.11~1927.11	40	30	26	17		6-piece
Yeongheungdeok-shop	1926.11~1927.3	34.5	29.5	24.5	19.5		6-piece
	1927.12	32	29	25	21	17	6-piece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37	33	26	23	21	7-piece

Catalog of Gyerim-shop, 1926).

#### IV. 혼구품의 재료와 품질

단계별로 품질이 구분되었던 혼구품은 각 등급에 맞는 소재와 장식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영흥덕상보>와 <영흥덕상보부록>, 『계림상회영업목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항목별로 기록 내용에 편차가 있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도 있지만, 품질에 따른 제작 양상과 근대 시기에 사용된 복식 재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 남성 혼구품

###### 1) 관복, 각대

관복으로 명명된 단령의 소재로는 갑사(甲紗), 하부단(河夫緞), 하비단(河比緞), 주자단(朱子緞), 영초(永綃), 양속(洋屬)이 사용되었다. <Table 6>에 따르면 갑사와 하부단, 하비단은 걸감과 안감의 소재로 모두 활용되었으며, 주자단·영초·양속은 안감으로 활용되었다. 계림상회에서는 걸·안감을 다르게 제작한 관복을 판매하였으며, 영흥덕상점에서는 걸·안감을 같은 소재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갑사와 하부단은 명칭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있었는데, 갑사는 장척갑사(長尺甲紗)·정패갑사(正牌甲紗)·상패갑사(上牌甲紗)·상품갑사(上品甲紗)·중갑사(中甲紗)·갑사·인견갑사(人絹甲紗)로 구분되었다. 열거한 순서에 따라 장척갑사가 가장 높은 품질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등위 표기가 없는 갑사와 인견갑사는 가장 낮은 품질의 걸감 혹은 안감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광택이 나는 질 좋은 비단인 하부단은(Jeong, n.d.) 원하부단(元河夫緞)과 유계하부단(柳系河夫緞)으로 구분되었다. 유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원하부단은 장속갑사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의 걸감으로, 유계하부단은 낮은 등급의 걸감 혹은 안감으로 활용되었다. 안감에서는 갑사, 주자단, 영초가 인견갑사나 서양 옷감류인 양속에 비해 상위 등급에 위치하였다. 주자단은 주자직의 단직물로 추측되며, 영초는 평직 바탕에 주자직으로 문양을 직조한 것을 말한다(Lee, 2004).

각대의 등급별 종류를 보면, 영흥덕상점은 '鶴庭角帶→學章金帶製→鶴庭角帶→元贊合金紋付帶→贊合金帶'(NFMK, n.d.), 계림상회는 '元角製內緞飾→학장금디→元贊合金紋付帶→贊合帶'(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의 순서로 등위가 구분되었다. 계림상회의 贊合帶는 贊合金帶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학정대(鶴頂帶)와 금대(金帶)가 주요 품목이었

<Table 6> Materials of Official Attire

Shop Grade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Yeongheungdeok-Sangbo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	<i>Jangcheok-gapsa</i> [長尺甲紗]	<i>Habudan</i> [河夫緞]	<i>Won-habudan</i> [元河夫緞] + <i>Yugye-habudan</i> [柳系河夫緞]
			<i>Jangcheok-gapsa</i> [長尺甲紗] + <i>Gapsa</i> [甲紗]
2	<i>Jeongpae-gapsa</i> [正牌甲紗] or <i>Habidan</i> [河比緞]	<i>Habudan</i> [河夫緞] + <i>Yeongcho</i> 永綃]	<i>Jeongpae-gapsa</i> [正牌甲紗] + <i>Jujadan</i> [朱子緞]
			<i>Jeongpae-gapsa</i> [正牌甲紗] + <i>Gapsa</i> [甲紗]
3	<i>Jeong(sang)pae-gapsa</i> [正(上)牌甲紗] or <i>Habidan</i> [河比緞]	<i>Sang-gapsa</i> [上甲紗]	<i>Sangpae-gapsa</i> [上牌甲紗] + <i>Jujadan</i> [朱子丹]
			<i>Yugye-habudan</i> [柳系河夫丹] + <i>Yangsook</i> [洋屬]
4	<i>Sangpum-gapsa</i> [上品甲紗]	<i>Sang-gapsa</i> [上甲紗] + <i>Ingyeon-gapsa</i> [人絹甲紗]	<i>Jung-gapsa</i> [中甲紗] + <i>Yangsook</i> [洋屬]
			<i>Yugye-habudan</i> [柳系河夫丹] + <i>Yangsook</i> [洋屬]
5		<i>Gapsa</i> [甲紗] + <i>Ingyeon-gapsa</i> [人絹甲紗]	



<Fig. 15> Official's Belt Made From Ox Horn Inlay (Andong Museum [AM], n.d.-a)



<Fig. 16> Official's Belt Made From Ox Horn Inlay (Yecheon Museum [YM], n.d.-a)

으며, 학정대의 등급이 금대보다 높았다. 학정대는 <Fig. 15>와 같이 화각으로 만든 노란색 판에 빨간 무늬를 넣은 띠돈이 부착된 것으로, 띠돈의 테두리에 금테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Lee, 2011). 그런데 <영흥덕상보부록>에서 학정각대(鶴頂角帶)와 학정금대(鶴頂金帶)가 구분되어 있고, <Fig. 16>의 학정대는 금이 아닌 소재로 테두리가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빨로 띠돈의 주위를 두른 학정각대가 별도의 상품군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체로 학정각대가 학정금대보다 상위에 위치하였다. 계림상회의 최고 품질 각대인 '元角製內緞飾'은 '학정'이 표기되지 않아 학정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품질의 빨[元角]로 띠돈을 만들고 안쪽에는 단(緞)을 대어 장식한 유형으로 판

단된다.

금대는 원찬합금문부대(元贊合金紋付帶)와 찬합금대(贊合金帶)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들은 합금 소재의 띠돈이 부착된 것으로, 띠돈에 무늬가 새겨진 삽금대(鍍金帶) 형식의 합금문부대와 무늬가 없는 소금대(素金帶) 형식의 합금대로 추측된다. '찬합금(贊合金)'에 관해서는 다른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없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찬합금 자체가 합금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로, 니켈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합금 방식을 도입한 근대 시기의 백동(白銅)처럼(Kong, 2019) 새로운 재료와 기술로 제작됐던 신허금(新合金)의 일종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贊’이 합금의 품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경우로, 좀 더 뛰어난 품질의 元贊과 贊으로 단계를 구분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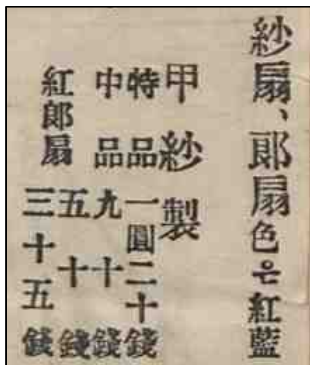
2) 사모, 흥배, 목화, 사선

사모는 모두 저사(苧紗)로 제작되었으며, 계림상회에서는 특히 ‘元苧紗別製, 苧紗衣上製, 苧紗中品第, 木苧紗製’(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로 품질이 세분되었다. 저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紗)의 한 종류이며, 목저사(木苧紗)는 날실에는 보통의 면사를 사용하고 씨실에는 꼬임이 많은 면사를 사용한 일본의 면직물이다 (“Mokjeosa”, n.d.). 품질이 가장 좋은 원저사(元苧紗)와 상·중 등급의 저사를 사용하여 품질을 구분하고, 하급의 사모는 면직물로 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영흥덕상보부록>에서는 사모의 뿔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苧紗맞침뿔付, 苧紗맞침겉뿔付, 苧紗맞침겉뿔付, 苧紗製上品, 苧紗仕帽’로 단계가 구분되었다. 뿔은 사모의 뒤에 달린 양각(兩脚)을 말하는 것으로, 겹으로 된 것이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더 높은 등급의 것은 맞춤으로 제작했던 양상이 보인다.

흥배는 두 상점 모두 쌍학흥배를 판매하였다. 특히 계림상회의 흥배는 ‘雙鶴筍笠別品製, 胸背雙鶴繡

上製, 雙鶴單繡製, 雙鶴單繡製’(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의 순서로 기록되었는데, 겹수와 단수의 자수 기법에 따라 품질을 구분한 점이 주목된다. 고(故) 이현향(대한민국 궁중수 명장)은 1979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을 먼저 박고 그 위에 수놓는 것은 겹수, 그대로 놓는 것은 홀수’라고 하였는데(“Tears Hidden Behind”, 1979), 계림상회 기록에서의 겹수와 단수가 같은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속심의 유무를 통한 입체감의 차이가 흥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목화는 우단[羽緞, 雨緞]과 전[氈, 纏]으로 만든 제품이 주로 유통되었다. <영흥덕상보부록>에는 ‘黑羽緞別製品, 雨緞目靴品製, 雨緞上製品, 黑氈맞침製, 氈製普通目靴’, 『계림상회영업목록』에는 ‘黑羽緞別製, 黑氈上製, 黑毯製, 黑木毯製’로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벨벳으로 제작된 우단제(羽緞製)가 전제(氈製)보다 고급품이었으며, 현재 전해지는 목화들도 이들 소재를 사용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영흥덕상점에서는 소재의 등급이나 맞춤 제작 여부에 따라 우단제와 전제의 품질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계림상회에서는 담(毯)과 목담(木毯)으로도 목화를 제작하였으며, 전제보다 낮은 등급의 중하품(中下品)으로 판매하였다.



<Fig. 17> Quality and Price of Groom's Fan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



<Fig. 18> Procession of a Groom Heading to the House of a Bride (NFMK, 2020, pp. 110-111)

사선(紗扇)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초행(初行)갈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의 일종으로, 갑사제(甲紗製)·갑사제품(甲紗製品)·갑사사선(甲紗仕扇)으로 기록된 품목과 신랑홍선(新郎紅扇)·홍랑선(紅郎扇)으로 기록된 품목의 두 종류가 있었다. <Fig. 17>에서 '紗扇, 郎扇 色은 紅 藍'이라 하고 郎扇은 홍색으로 명시된 것을 보면, 갑사제의 紗扇은 남색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갑사제 사선의 가격이 홍랑선보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풍속화에서 <Fig. 18>과 같이 두 가지 색의 부채로 얼굴을 가린 신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홍선(紅扇)을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보아 명칭에서도 그 의미가 강조된 홍색의 사선이 일반적인 신랑의 부채로 주로 사용되었고, 남색의 사선은 더 고급품으로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여성 혼구품

### 1) 원삼, 원삼대

원삼의 소재로는 신화단(新花緞), 하비단(河比緞), 문명단(文明緞), 갑사(甲紗), 생고사(生古紗), 숙고사(塾古紗), 고사(古紗), 주자단(朱子丹), 법단(法緞), 양속(洋屬)이 사용되었다 <Table 7>. 남성의 관복보다 다양한 명칭의 새로운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법단은 중국제와 구분되는 프랑스산 단직물로 일본에서 모방한 것이 1910년 국내에 들어왔으며, 1924년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Jang

& Kwon, 1993). 신화단은 수자조직의 단직물이며("What are some", 1938), 하비단, 문명단은 명확한 특성은 알기 어려우나 단직물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원삼 역시 겉·안감을 다르게 한 것과 같게 한 것이 있었는데, 영흥덕상점의 기록을 참고하면 안팎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상등품(上等品)에 해당하였다. 영흥덕상점에서는 생고사, 신화단, 하비단에 고사나 갑사를 안감으로 넣은 원삼이 가장 좋은 상품이었으며, 문명단이나 갑사로 안팎을 만든 것은 낮은 품질에 속했다. 계림상회에서는 숙고사나 생고사/갑사에 주자단을 안감으로 넣은 것이 가장 고급품으로 판매되었는데, 사(紗) 종류의 겉감에 단(緞) 직물을 안감으로 넣어 제작한 점이 독특하다. 남성 관복에서도 갑사 겉감과 주자단 안감을 활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러한 조합이 계림상회만의 특별한 제작방식이 아니었을까 한다. 법단과 주자단, 갑사와 양속으로 만든 것은 아래 등급에 위치했다.

원삼대의 소재 정보는 <영흥덕상보부록>에서만 보이며, '新花緞帶·河夫緞製·同品美麗帶·文化緞同帶·同帶'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Table 7>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원삼과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품명의 소재로 원삼대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삼대의 명칭을 동대(同帶)로 지칭한 것 역시 이러한 바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비단은 하부단(광택이 나는 일본제 비단), 문명단은 약산단[藥山緞, 능직 바탕

<Table 7> Materials of Woman's Ceremonial Robe

Shop Grade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Yeongheungdeok-Sangbo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	Sinhwadan[新花緞]+Gosa[古紗]	Saengngosa[生古紗]+Gapsa[甲紗]	Sukgosa[塾古紗]+Jujadan[朱子丹]
2	Habidan[河比緞]+Gosa[古紗]	Sinhwadan[新花緞]+Gapsa[甲紗]	Saengngosa[生古紗]+Jujadan[朱子丹] Gapsa[甲紗]+Jujadan[朱子丹]
3	Sinhwadan[新花緞]	Gapsa[甲紗]	Cha-beopdan[次法緞]+Jujadan[朱子丹]
4	Munmyeongdan[文明緞]	Gapsa-chapum[甲紗次品]	Cha-gapsa[次甲紗]+Yangsook[洋屬]
5	Gapsa[甲紗]		

에 반대 효과의 짜임으로 무늬를 내는 비단] (“Yaksandan”, n.d.)과 비슷하며 수자직 바탕에 윤기가 나는 비단인 문화단(文化緞) (“Munhwadan”, n.d.)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직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큰댕기, 앞댕기

큰댕기의 품질은 <Table 8>과 같이 바탕 직물의 종류와 장식재에 따라 구분되었다. 먼저, 영흥덕상점의 큰댕기는 문화단·신화단·양단·태서단(泰西緞) 제품이 있었다. 문화단이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신화단과 양단은 상위 제품, 태서단은 중하위 제품에 활용되었다. 태서단은 ‘緞’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목면직물(木棉織物)이며, 당시 세관에서도 견주직물(絹紬織物)로 오인하여 과세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Question and answer”, 1924). <영흥덕상보부록>에서 2위와 5위 제품은 ‘特上品 金泊 唐只’, ‘上製 大唐只’로만 기록되어 있어 소재의 종류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계림상회에서는 하부단, 태서단과 함께 갑사도 활용하였으며, 태서단 제품은 영흥덕상점과 같이 중하위에 위치하였다.

영흥덕상점의 큰댕기는 가장 좋은 품질의 것에만 석웅황[石雄黃, Orpiment]을 달고 나머지는 금박으로만 장식한 반면, 계림상회의 상품은 장식

종류가 더 많고 세분되었다. 금박과 석웅황 외에 진주가 장식재로 사용되었으며, 금박·진주·석웅황을 모두 갖춘 것과 금박·석웅황을 갖춘 것으로 구분하였다. 영흥덕상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품질의 것에도 석웅황을 부착한 점에서 계림상회의 큰댕기가 품질 면에서 영흥덕상점의 것을 상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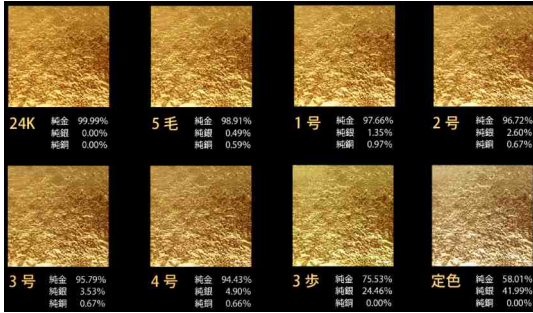
『계림상회영업목록』에 금박의 종류로 기록된 정금박(正金箔) 및 일호금(一號金)과 관련해서는 일본 전통 가나자와 금박[金澤金箔]의 견본을 참조할 수 있다. <Fig. 19>의 견본에는 24K부터 정색(定色)까지 8개 항목의 금박 색상과 배합비가 정리되어 있는데, 배합 비율의 내용은 <Table 9>와 같다. 8개 항목 중 1~4호까지 ‘号’로 지칭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1호는 순금 97.66%, 순은 1.35%, 순동 0.97%의 배합으로 만들어지는 상위 등급의 금박이다. 이를 통해 계림상회의 일호금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보다 높은 품질의 것으로 기록된 정금박은 ‘正’의 의미를 함께 고려했을 때 순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댕기 역시 바탕 직물과 장식 재료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품질이 구분되었다. 먼저, <영흥덕상보부록>에는 ‘黑色金別上製, 黑色金別上製品, 上品製眞珠銀付, 上品金泊製, 上品金泊付’의 순서로 앞

<Table 8> Materials of Ceremonial Hair Ribbon(Keundaengi)

Shop Grade	Supplement to the Yeongheungdeok-Sangbo		Yeongheungdeok-Sangbo	Product Catalog of Gyerim shop	
	Fabric	Ornaments	Fabric	Fabric	Ornaments
1	Munhwadan [文化緞]	Gold leaf Orpiment	Sinhwadan[新花緞]	Habudan [河夫丹]	Geong-gold leaf[正金箔] Pearl Orpiment
2	-	Gold leaf	Yangdan[洋緞]	Gapsa [甲紗]	1ho-Gold[一號金] Pearl Orpiment
3	Munhwadan [文化緞]	Gold leaf	Taeseodan[泰西緞]	Taeseodan [泰西緞]	1ho-Gold[一號金] Orpiment
4	Munhwadan [文化緞]	Gold leaf		Taeseodan [泰西緞]	Gold leaf[金箔] Orpiment
5	-	-			

맹기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바탕 직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품(上品)과 별상제(別上製)로 품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식 재료인 진주와 은은 3등급의 재료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상위 등급의 것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Fig. 19> Gold Leaf Color Sample (Kanajawakatani, n.d.)

<Table 9> Gold Leaf Mixing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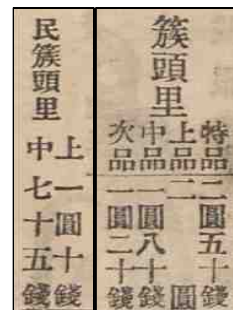
Grade	Pure gold [純金]	Fine silver [純銀]	Fine copper [純銅]
24K	99.99%	0.00%	0/00%
5毛	98.91%	0.49%	0.59%
1号	97.66%	1.35%	0.97%
2号	96.72%	2.60%	0.67%
3号	95.79%	3.53%	0.67%
4号	94.43%	4.90%	0.66%
3步	75.53%	24.46%	0.00%
定色	58.01%	41.99%	0.00%

『계림상회영업목록』에는 ‘上甲紗正金箔珊瑚眞珠付, 甲紗一號眞珠付, 太西緞一號眞珠付, 太西緞金箔眞珠付’의 순서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소재는 갑사와 태서단이 사용되었으며, 큰맹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금박과 일호금으로 금박의 품질을 구분하였다. 계림상회의 앞맹기는 산호(珊瑚), 진주(眞珠), 주(珠)를 장식 재료로 하였는데, 품질이 가장 좋은 것에만 산호와 진주를 함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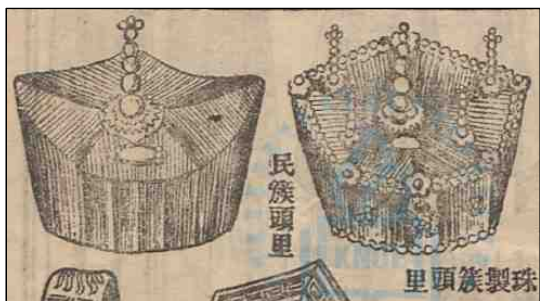
### 3) 족두리, 용잠, 첩지

족두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영흥덕상점에서는 크게 주석족두리(珠飾簇頭里)와 민족두리(民族頭里)로 종류를 구분하였다(Yeongheundeoksangbo No. 2, n.d.). <영흥덕상부록>에 ‘眞珠 別上品, 眞珠 簇頭里, 黑色 簇頭里’의 세 종류가 기록되었으며, 진주의 장식 여부와 품질에 따라 등급이 정해졌다.

『계림상회영업목록』에는 ‘色珠花冠別製, 色珠花冠上製, 元貢緞製, 太西緞製’의 족두리가 기록되었다. 상위 등급의 명칭이 색주화관(色珠花冠)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 개념인 상자를 제외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Fig. 20>의 족두리 단가표를 대입했을 때 <Table 10>과 같이 5개 품목의 총합이 세트 가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색주화관 역시 족두리로 판단되며, 특·상품(特·上品)으로서 원공단체와 태서단체의 중·차품(中·次品)과 구분되었다. 공단체와 태서단체는 장식이 기록되지 않아 명칭상으로는 민족두리로 보이나, <Fig. 20>을 보면 민족두리는 별도의 상품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Fig. 21>에서 민족두리가 외봉족두리의 형태로 묘사된 점을 볼 때 당시에 통용된 민족두리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으며, 민족두리보다 상위 개념인 공단체와 태서단체의 족두리에도 장식이 부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Fig. 20> Jokduri Price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



〈Fig. 21〉 Jokduri Illustrations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

용잠에 관해서는 양 상점 모두 기록이 단조로운 편이다. 대부분 특품, 상품, 중품과 같은 등급명 혹은 가격만 기재되어 있으며, 〈영흥덕상보부록〉에서 ‘別彫刻特上品, 洋銀龍簪, 別品맞침製, 別上品, 上上品龍簪’으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용잠은 크게 맞춤 제작품과 기성품으로 구분되었으며, 최상위품인 별조각특상품은 잠두(簪頭)의 용 모양을 특별히 정교하게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유물 중에는 〈Fig. 22〉와

같이 용이 섬세하게 표현된 용잠 외에 〈Fig. 23, 24〉와 같이 단순화된 용의 형상을 짚어낸 듯한 것들도 많이 남아 있어 다양한 품질의 용잠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첩지에 대해 『계림상회영업목록』에는 가격 정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영흥덕상보부록〉에서는 ‘上品銀蛙付’와 ‘上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은 개구리첩지가 고급품으로 제작되었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20~1930년대 신문 광고 및 혼구품 판매점의 홍보지(弘報紙)와 카탈로그를 통해 근대 혼구품의 구성 및 유통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혼구품의 품목과 등급, 가격, 재료 및 제작방식, 광고 양상과 판촉방식, 구매 경로와 유통 범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혼구품은 광진상회, 만물상전, 계림상회, 영흥덕

〈Table 10〉 Prices of Female Wedding Items

Grade	Item	Wonsam [元衫]	Daedaengi [大唐其]	Yongjam [龍簪]	Jokduri [簇頭里]	Myeondaengi [面唐其]	Set
Special Grade		21圓	9圓50錢	4圓50錢	2圓50錢	2圓50錢	40圓
High Grade		17圓	6圓	3圓50錢	2圓	1圓50錢	30圓
Medium Grade		15圓70錢	5圓	2圓50錢	1圓80錢	1圓	26圓
Low Grade		11圓	2圓50錢	1圓50錢	1圓20錢	80錢	17圓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1926, pp. 6-7)



〈Fig. 22〉 Dragon Shaped Hairpin  
(AM, n.d.-b)



〈Fig. 23〉 Dragon Shaped Hairpin  
(YM, n.d.-b)



〈Fig. 24〉 Dragon Shaped Hairpin  
(AM, n.d.-c)

상점, 남창상점, 덕천상점과 같은 혼례용품 전문점을 통해 판매되었다. 혼구품 광고와 판매는 192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만물상전과 계림상회, 영흥덕상점의 세 곳이 가장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였다. 혼구품 광고는 신문의 광고란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우체국을 통한 통신 판매를 시행함으로써 광고를 매개로 한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계림상회와 영흥덕상점은 자체 홍보물도 제작하였는데, 전국 각지에 무료 배포하여 판매 품목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 소비자의 구매를 더욱 촉진했다. 특히 계림상회는 1926년 정교한 삽화와 함께 판매 목록을 총망라한 『계림상회영업목록』을 발간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삽화는 여러 상점의 광고에서도 공유되었으며, 그 제작자가 우석 김기창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혼구품은 남녀 모두 예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5종에서 7종 세트로 판매되었다. 남성의 경우 관복·각대·사모·흉배·목화의 5종을 기본으로, 관복판과 사선을 포함해 최대 7종 구성으로 확장되었고, 여성은 원삼·족두리·용잠·대당기·면당기의 5종 구성 외에 첩지, 상자, 동대 등을 추가하여 구성의 폭을 넓혔다. 남녀 혼구품 모두 6종 세트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남성용은 5종 구성+관복판, 여성용은 5종 구성+첩지/상자로 6개 품목이 구성되었다.

혼구품 세트는 상품군의 품목 수와 품질에 따라 3~5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등급의 명칭은 판매점과 광고 시기에 따라 ‘특(特), 별(別), 상(上), 중(中), 차(次), 갑(甲), 을(乙)’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등급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졌으며, 남성용 5종 세트는 29~42圓, 6종 세트는 18~45圓, 7종 세트는 22~38圓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성용 5종 세트는 26~35圓, 6종 세트는 17~45圓, 7종 세트는 21~37圓의 가격대였다. 남녀 혼구품의 가격대를 갈게 책정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1~7圓

정도 높았다.

혼구품은 각 품목의 특성과 등급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장식 재료,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먼저, 관복의 소재로는 갑사(甲紗), 하부단(河夫緞), 하비단(河比緞), 주자단(朱子緞), 영초(永綃), 양속(洋屬)이 사용되었다. 특히 갑사는 장척갑사(長尺甲紗)·정패갑사(正牌甲紗)·상패갑사(上牌甲紗)·상품갑사(上品甲紗)·중갑사(中甲紗)·인견갑사(人絹甲紗)로 품질이 세세하게 분류되었다. 장척갑사나 원하부단(元河夫緞) 등의 고급 비단을 사용한 경우가 상위 품질로 분류되었으며, 안감과 걸감을 다르게 조합한 방식도 고급화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각대는 화각으로 띠돈을 제작한 학정대가 금대보다 상위 등급에 위치하였으며, 학정각대와 학정금대의 구분이 있었다. 사모는 저사의 종류와 겹제(袂製) 양각(兩脚)의 맞춤 제작 여부로 품질을 구분하였다. 쌍학흉배로 통용된 흉배는 속심의 유무에 따른 겹수와 단수의 차이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목화는 우단(羽緞) 제품이 가장 상위 등급이었으며, 전(氈), 담(毯), 목담(木毯) 등 다양한 직물로 제작되었다. 사선은 고급품의 남색 갑사제 사선과 일반적인 홍색 사선으로 구분되었다.

원삼의 소재로는 신화단(新花緞), 하비단, 문명단(文明緞), 갑사, 생고사(生古紗), 숙고사(塾古紗), 고사(古紗), 주자단, 양속이 사용되었다. 생고사, 숙고사, 신화단, 하비단을 사용한 것이 상등품으로 제작되었으며, 계림상회에서는 사직물(紗織物)의 걸감과 단직물(緞織物)의 안감을 조합하는 독특한 제작방식을 보여주었다. 동대(원삼대)는 원삼과 같거나 유사한 직물로 제작되었다. 땡기는 문화단(文化緞), 신화단, 양단, 태서단(泰西緞), 하부단, 갑사로 만들어졌으며 신화단, 양단, 하부단, 갑사 제품이 상등품이었다. 금박을 기본으로 석유향, 진주, 산호 등 장식 재료의 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품질 체계를 운용하였다. 땡기의 금박 명칭인 정금박(正金箔)과 일호금(一號金)은 가나자와 금박과 비교하여 각각 순금과 상위 등급의 금

박으로 그 특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족두리는 직물의 종류와 구슬 장식의 정도에 따라 품질이 구분되었고, 맞춤 제작품과 기성품으로 구분된 용잠은 조각의 정교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첩지는 은 개구리첩지가 고급품으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신문 광고 및 홍보 전단과 카탈로그를 통해 근대 혼례 문화의 시각적·물질적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당시 복식의 재료와 품질, 유통에 관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직물 관련 용어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관련 자료의 보강과 융합 연구를 통한 발전된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그간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근대 시기 혼구품의 특성과 제작양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근대 복식 문화사와 직물사 및 공예사, 소비문화 연구의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ndong Museum (n.d.-a) Official's belt [각대]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1900100066600000>
- Andong Museum (n.d.-b) Dragon-shaped silver hairpin [은용잠]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1900100024800000>
- Andong Museum (n.d.-c). Dragon-shaped hairpin [용잠]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1900200052500000>
- Baek, I. H. (2021). The 'butterfly painter' Kim Ki-chang (Useok) who settled in Gongju. In Gongju Cultural Center Loc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Eds.), *Figures of Gongju 9 [공주의 인물 9]* (p.55). Gongju Cultural Center.
- Deokcheon-shop [德泉商店] (1930, October 1). *Maeil Sinbo [毎日申報]*, 7.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211070020920303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2-11-07&officeId=00020&pageNo=3&printNo=801&publishType=00020>
- Gwanbok Wonsam [冠服元衫] (1927, March 5). *The Chosun Daily*, 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703050023920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7-03-05&officeId=00023&pageNo=3&printNo=2328&publishType=00020>
- Gyerim store selling official court robes at bargain prices [鷄林商會에서 冠服元衫을 大廉價販賣] (1924, December 14). *The Dong-a Ilbo*, 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12140020920202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12-14&officeId=00020&pageNo=2&printNo=1569&publishType=00020>
- Gyerim-shop [鷄林商會] (1924, October 31). *The Dong-a Ilbo*,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10310020920105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10-31&officeId=00020&pageNo=1&printNo=1525&publishType=00020>
- Jang, H. J., & Kwon, Y. S. (1993). A study on shape and special quality of Korea silk fabrics of the first half year of 20 century-In terms of the satin fabrics and gauze and leno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1, 61-74.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199311919946900&SITE=CLICK>
- Jeong, J. I. (n.d.).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계림상회 영업목록]. *Seoul Museum of History*. [https://museum.seoul.go.kr/www/board/NR\\_boardView.do?bbsCd=1026&seq=20230404175009422&sso=ok](https://museum.seoul.go.kr/www/board/NR_boardView.do?bbsCd=1026&seq=20230404175009422&sso=ok)
- Kanajawakatani (n.d.). Gold leaf color sample [金箔色見本]. <https://www.k-katani.com/%E9%87%91%E7%AE%94%E8%89%B2%E8%A6%8B%E6%9C%AC>
- Kim, C. (2025). A study on Gyerim Sanghoe, a Korean company in Jongno 2-G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ed on 『business list of Gyerim Sanghoe』 -.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98, 37-63. <https://doi.org/10.17647/jss.2025.02.98.37>
- Kong, S. (2019). Material composition and change of Baekdong alloy in the late Joseon period.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52(3), 38-55. <https://www.nrich.go.kr/kor/subscriptionDataUsrView.do?menuIdx=1651&idx=154&gubun=J>
- Kyonggi University Sosung Museum (n.d.). Paper decorated box [지장색상자]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506000100090000000>
- Lee, E.-J. (2004). *A Study on silks during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ttps://lib.ewha.ac.kr/search/media/url/CAT00000801452>
- Lee, E.-J. (2011).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terminology of ranking belt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10), 135-1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22061>
- Manufacture and sale of various fur goods [各種毛物製造販賣] (1931, December 1). *The Dong-a Ilbo*, 2.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112010020920202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1-12-01&officeId=00020&pageNo=2&printNo=3929&publishType=00020>
- Mokjeosa [목저사] (n.d.). *Naver Dictionary online*. Retrieved May 10, 2025,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d08be9c5ebd4d2dbb54fbc77566d377>
- Munhwadan [문화단] (n.d.). *Naver Dictionary online*. Retrieved June 8, 2025,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c0865ae2be749d3950de17f7cf08bbb>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20). Finding folklore in Gisan's genre paintings.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d.). Yeongheungdeok-shop advertisement [영흥덕상점(永興德商店) 광고] [Photo]. <https://nfm.go.kr/user/data/home/101/DataRelicView.do?seq=PS0100200100108251300000>
- National Museum of Korea (n.d.). Official robe box [관복함] [Photo].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502000000.do?schM=view&searchId=search&relicId=133752>
- New wedding ceremony [新案婚禮式] (1931, August 26). *The Dong-a Ilbo*, 4.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1082600209204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1-08-26&officeId=00020&pageNo=4&printNo=3832&publishType=00020>
- Product Catalog of Gyerim-shop* [鷄林商會營業目錄]. (1926).
- Question and answer [質疑應答] (1924, February 29). *The Dong-a Ilbo*, 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02290020920302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02-29&officeId=00020&pageNo=3&printNo=1280&publishType=00020>
- Shin, H.-S. & Kim, J.-Y. (2009). A Study on wedding costume worn during the reigns of King Gojong and Sunjong.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3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342444>
- Special sales advertisement [特別賣出廣告] (1921, April 14). *The Chosun Daily*,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1041400239201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1-04-14&officeId=00023&pageNo=1&printNo=236&publishType=00020>
- Tears hidden behind the splendor-Over 40 years [“華麗(華麗)”뒤에 숨은 눈물 40여년] (1979, April 14). *The Kyunghyang Shinmun* [경향신문], 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view.naver?editNo=2&printCount=&publishDate=1979-04-14&officeId=00032&pageNo=5&printNo=10317&publishType=00020&articleId=&serviceStartYear=1920&serviceEndYear=1999>
- Traditional wedding supplies [朝鮮舊式婚具用品具備] (1934, April 6). *The Chosun Daily*, 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406002392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4-04-06&officeId=00023&pageNo=2&printNo=4613&publishType=00020>
- Wedding items [婚具物品] (1922, November 7). *The Dong-a Ilbo*, 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211070020920303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2-11-07&officeId=00020&pageNo=3&printNo=801&publishType=00020>
- Wedding items sold at low prices [婚具物品廉價販賣] (1927, February 12). *The Chosun Daily*, 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7021200239202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7-02-12&officeId=00023&pageNo=2&printNo=2307&publishType=00020>
- What are some common everyday fabrics? [日常用移入織物 어떠한 것이 만흔가] (1938, April 1). *The Dong-a Ilbo*, 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8040100209205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8-04-01&officeId=00020&pageNo=5&printNo=5962&publishType=00020>
- Yaksandan [약산단] (n.d.). *Naver Dictionary online*. Retrieved June 8, 2025,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5b5c14f0d466ab2498e8ecb367560>
- Yecheon Museum (n.d.-a). Official's belt [관대]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31500100047300000>
- Yecheon Museum (n.d.-b). Dragon-shaped hairpin [용잠] [Photo].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31500100106700000>
- Yeongheundeoksangbo No. 2* [永興德商報 第二號]. (n.d.).